

내셔널리즘을 넘어 글로벌 공동체로

정구종(鄭求宗)

냉전이후 세계 각국은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의 움직임 속에서 블록화와 공동체구축의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새로운 공동체는 과거의 정치이념이나 군사동맹 등 하드파워에 대신하는 경제·외교·문화 등 소프트파워적인 동질성과 상호협력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발족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위한 제안과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국가간의 대화의 채널은 많고 공동체구상은 다양하지만 동아시아의 실질적인 정치·경제통합을 지향할 기구의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떠오르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이 좀처럼 통합되지 못하고 엇갈리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 배경이 있다 하겠다. 첫째, 아시아각국은 기독교문화를 공유하는 유럽과는 달리 문화적 배경과 경제발전의 격차를 갖고 있다는 점과, 둘째, 이 지역에서 영향력의 쇠퇴를 우려하는 미국과 새로운 아시아세력으로 부상한 중국간의 대립구도. 마지막으로 한·중·일 로 대변되는 동아시아 중심국가들 간에 냉전 이후 부각된 각각의 신민족주의의 발호가 통합의 전제가 되는 「진정한 화해」와 「신뢰」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8년 이후의 한일양국관계는 한국정부의 일본대중문화개방과 일본에 있어서의 한류붐으로 어느 때보다 활발해져 메머드 인적교류의 시대를 맞았다. 그럼에도 한일양국관계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인식이 2005~2006년 사이에 급속도로 나빠진 것은 야스쿠니·독도·교과서등 역사인식의 차이 등이 발단이

된 외교마찰과 정치적 갈등이 양국 매스컴에 의해 확산되면서 양국국민감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는 독도·야스쿠니·교과서 문제의 배경에 일본의 과거 아시아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내셔널리즘」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축이 되어야 할 한·중·일 3국 관계에서 한·일 관계와 일·중관계의 불안정성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장애가 되고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중·일이 동아시아 경제의 90%를 차지하므로 3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경제협력, 나아가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ASEAN+3국간에는 FTA, EPA를 맺은 나라가 많다. 그런데 가장 경제력이 강한 한·중·일의 경제협력이나 FTA등은 안되어 있다. 이것이 3국간의 정치 글로벌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냉전이후 각국에서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움직임과 함께 이른바 신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개헌논의의 공연화를 비롯하여 수상의 거듭된 야스쿠니신사참배, 중군위안부문제 및 교과서검정에 있어서의 과거사 정당화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우경화, 국가주의 부활 등의 지적을 받았다. 우경화는 일본 내에서도 논의를 꺼리는 분위기에 지배되어있다. 한국에서는 일부 극단주의적 민족주의, 사회단체들에 의한 반일데모가 마치 한국사회전체의 움직임인양 일본의 TV에 의해 증폭되었다. 이 같은 반응을 되받아서, 일본에서는 혐한론이 고개를 들어 일본사회의 한류붐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에서도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 자신감이 바탕이 된 신민족주의가 특히 네티즌들의 집단동원을 통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중·일 3국이 이 같은 상호 부정적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 뛰어넘지 못하면 동아시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공동체구축은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상호공격적인 내셔널리즘의 에너지를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내셔널 인터레스트로 유인해 갈 수 있는 협력모델의 확립이 절실하다.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와 같이 한일간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 공동의 사업이나 목표를 제시하고, 그 성취에서 상호의 이익을 얻고 공고한 한일관계를 세계에 알리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찾아서 추진하는 것도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세계는 SoftPower로서의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국가간 관계

에 정치·군사·외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의 세기」에 살고 있다. 한·일간에도 정치·외교의 갈등과 마찰을 넘어서 문화·인적교류를 통한 시민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양국관계의 안정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일양국의 정치·경제계 지도자와 시민사회단체구성원들은 동아시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정치경제공동체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마찰을 넘어서 상호협력과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하여 글로벌시대의 한일간 역사인식의 상호격차와 영토문제의 갈등을 넘어서 정치·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ナショナリズムをこえて、グローバル共同体へ

鄭求宗

冷戦以後、世界各国は新たな国際秩序の変動のなか、ブロック化と共同体構築の必要性に直面した。新しい共同体は過去の政治理念や軍事同盟などのハードパワーに代わるもので、経済・外交・文化といったソフトパワー的な同質性と相互協力の方向が模索された。アジアでも、アジア太平洋地域の経済共同体を目指して発足した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体(APEC)など、東アジア共同体を立ち上げるための提案と動きが続いた。

一方、アジアの国々に対話のチャンネルは多く、共同体構想も多様に存在するが、東アジアに政治・経済の統合をもたらす実質的な機構が具体化したことは未だない。このように東アジア共同体構想が錯綜しているのには、次の三つの背景が考えられる。第一に、アジア各国は、キリスト教文化を共有するヨーロッパとは異なり、文化的な背景と経済発展における偏差が大きい。第二に、この地域における影響力の低下を懸念するアメリカと、新勢力として急浮上する中国という対立構図が挙げられる。第三に、日中韓に代表される東アジアの中心国家の間で、冷戦後に浮上した新ナショナリズムが、統合の前提となるべき「真の和解」や「信頼」を妨げているという現状がある。

ところで、1998年以降の日韓両国関係は、韓国政府の日本大衆文化開放と日本における韓流ブームによって、活発な人的交流の時代を迎え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両国関係と両国民間の相互認識が2005～2006年の間に急速に悪くなったのは、靖国参拝・独島(竹島)問題・教科書問題などの歴史認識の相違から生じる政治・外交的葛藤が両国のマスコミによって拡散され、両国民

の感情が悪化したためである。韓国では、靖国・独島・教科書問題の背景として日本が過去のアジア侵略の歴史を正当化しようとする「新ナショナリズム」が挙げられている。東アジアの経済協力の主軸となるべき日中韓の関係だが、日韓関係や日中関係の不安定が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に障害となっているという指摘もなされている。東アジア経済の90パーセントを占める日中韓の合意なくして、東アジアにおける経済協力、ひいては経済統合はあり得ない。ASEAN+3の国家間では、FTA、EPAを結んでいるところが多い。それに比べ、最も経済力のあるとされる日中韓の間の経済協力、FTAは結ば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ある。三ヶ国間の政治のグローバル化が要求される理由である。

冷戦以後、世界各国では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確立の動きと共に、いわゆる新ナショナリズムが台頭しつつある。憲法9条の改憲議論を始め、首相の度重なる靖国参拝、元「従軍慰安婦」問題、教科書検定にみられる過去の正当化という日本の態度は、アジアの国々から、右傾化や国家主義の復活にはかならないと厳しく批判された。右傾化は、日本国内においても、議論を避ける雰囲気支配的である。一方、韓国では、一部の極端な民族主義や反日デモがあたかも韓国社会全体の意見のように、日本のマスコミに報道され、問題が一層増幅されたところもある。これを受けたかたちで、日本では嫌韓論が台頭し、韓流ブームに水をさした。中国でも、国際社会における位置や経済的な自信に基づいた新ナショナリズムが、とりわけ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た集団的な動員を伴いつつ、台頭している。日・中・韓三ヶ国が、相手に否定的なナショナリズムを克服し、乗り越えないかぎり、東アジアの共同利益を追求する、日中韓による共同体の構築はあり得ないだろう。相互に攻撃的なナショナリズムのエネルギーを、相互に利益をもたらすナショナル・インタレストに導き得るような協力モデルの確立が切実に求められる。

2002年のワールドカップ共催の成功が示したように、両国の国民的関心を呼ぶ共同事業や目標を提示し、その達成から互いに利益を共有し、より強固な日韓関係を世界にアピールできる共同プロジェクトを進めるのも、最近の硬直した日韓関係を突破する一つの方法論になり得るであろう。

21世紀の世界は、ソフトパワーとしての文化の多様性と力動性が、政治・軍事・外交に劣らぬほど重要な役割を果たす「文化の世紀」である。政治や外交上の葛藤を乗り越えた、日韓両国の文化や人的交流の市民ネットワークの活性化こそが、両国関係の安定をもたらしてくれると期待する。

日韓両国の政治、財界の指導者、および市民社会の構成員は、新しい政治経済共同体の価値と可能性を国際社会に提示することによって、東アジア共同の利益に繋がる相互協力と信頼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プロセスを通して、日韓両国の歴史認識の対立や領土問題を乗り越え、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政治経済協力の新しい地平を開いていくことができよう。